

소니그룹 주식회사는 이가라시 타츠야(Tatsuya Igarashi)씨를 W3C Advisory Board(이하 AB)의 재임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가라시씨는 소니에서 오랫동안 멀티미디어와 네트워크 업무에 종사, W3C 에서도 소니의 Advisory Committee(이하 AC) 대표와 “Media and Entertainment Interest Group”의 공동 의장을 역임, 현직 AB 멤버입니다 . 업계 주도 포럼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는 이가라시씨가 W3C AB 에 재임하는 것을 지지하고, W3C 멤버와 웹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가라시씨의 선거 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AB 첫 번째 임기가 끝나려고합니다.

약 2 년전 AB 멤버로 취임한 당시, COVID-19 유행이 이렇게 확대되어, 세계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제한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과 웹 인프라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했습니다. 동시에 웹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한 기술자로서, AB 멤버로서도, 앞으로도 W3C 의 활동을 계속시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웹기술을 발전시키데 공헌을 하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AB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에는, Legal Entity 로의 이행을 성공시키는 것과, Web 커뮤니티에 글로벌 참가와 인클루전에 공헌해 나가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Legal Entity 로의 이행은 처음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AB 멤버·W3C 팀 스태프와 함께,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One Web” 을 실현하고, 또한 여러 국가와 지역 사람들의 생활, 문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W3C 를 운영하는 Legal Entity 의 이사와 매니지먼트 또한, 지역의 다양성과 인클루전을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년전 W3C 가 설립된 이래 미국, 유럽, 아시아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의 호스트에 의한 공동 운영으로, 글로벌하고 지역별로 분권된 오퍼레이션 하에서 웹기술의 표준화가 추진되어왔습니다. Legal Entity 의 논의에서는, 전 멤버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아래,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리더십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에 적합한 표준화 활동의 추진을 양립시킴으로써, W3C 가 글로벌한 표준화 단체로서 한층 더 발전할수 있는 운영 체제가 되도록, 지금까지도 진언해 왔습니다.

또한, 웹 커뮤니티의 글로벌화, 인클루전의 관점에서는, 아시아권에서의 AC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참가를 추진할 목적으로, 원격 회의의 Time zone(시간대) 과제의 해결에 대해 힘써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AC 회의나 TPAC 회의가 구미의 시간대에 맞춰 원격으로 개최된 것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 중동의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AC 멤버들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AB 회의에서 과제를 공유, W3C management 의 협력을 얻은 결과, 시간대를 고려한 회의 개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대 과제는 완전한 대답은 없고, 기본적으로 회의 주최자가 참가자의 시간대를 배려해 공평하게 되도록 시간 설정, 또는, 시간대를 로테이션 하는 등 자발적인 대응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의 시정조치로, W3C Group 정기 원격회의 개최시간과 참가자의 시간대를 멤버에게 공개하여 과제 의식을 상기시키는것으로, 시간대 과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장벽은 더욱 토려내야 합니다. 현재 AC 원격회의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의 동시통역이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통역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후 대면회의도 계속해서 동시통역이 지금같이 도입 될수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표준화 활동의 현장인 Group 회의도 non-native English speakers 분들이 회의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때문에 저는 원격이나 대면등 회의 형식에 관계없이 Group 이 원하면, Zoom 등의 Auto English Caption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제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통역보다 저렴하며, 영어로의 논의를 방해하지 않고, non-native speaker 가 영어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력은 전 선거 표명시에 기재했습니다만, 웹 브라우저 NCSA Mosaic 를 보고, 1995 년에 HTML 브라우저를 탑재한 인터넷 단말을 개발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웹의 잠재력을 믿고 웹 기술의 연구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0 년부터는 연구개발에 더하여, 방송표준화와 W3C 의 표준화 활동을 해 왔지만, 올 4 월에 연구개발부서에서 전사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하여 W3C 표준화 활동의 추진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AB 에 재선되면 지금보다 더욱 W3C 의 표준화 활동에 공헌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